

한국복지패널로 본 보건복지지표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로 주요 사회복지지표를 분석한 결과,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분배, 주거, 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복지 수급률과 경험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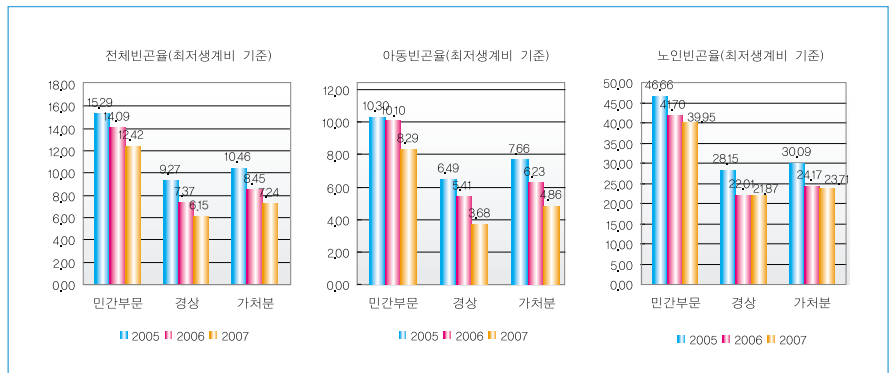
1. 보건복지지표 동향

□ 소득·빈곤율과 지니계수

○ 2005~2007년 동안 전체, 아동, 노인의 빈곤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전체와 아동 빈곤율은 매년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의 경우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경상소득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은 21.87%로 전체 빈곤율(6.15%)에 비해서는 3.6배 정도 높고, 아동 빈곤율(3.68%)보다는 무려 5.9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림1] 인구집단별 빈곤 추이



주: 1) 2005~2007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사용
2) 일반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기초보장 수급가구: 현금급여기준선 기준으로 산출
3) 민간부문 소득(=시장소득)이란 임금소득+사업및자영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 지니계수는 일관된 하락의 추세를 보이는 대신, 2006→2007년 동안 약간 상승하다가 2007년→2008년 동안 다시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반면, 소득분포의 양 끝 부분에 주목하는 P90/P10, P25/P75의 경우는 동 기간 동안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소득분포의 모든 부분에서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양극점의 상태를 비교하는 P90/P10 및 P25/P75가 상이한 추세를 보이는 것은 중간층의 소득분배가 약간 악화된 반면, 저소득계층의 소득분배는 약간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이는 동 기간 동안 빈곤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는 무관치 않음

[표1] 불평등지표

		민간부문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2005	0.3857	0.3531	0.3422
	2006	0.3900	0.3567	0.3449
	2007	0.3849	0.3527	0.3405
p90/p10	2005	8.33	5.97	5.49
	2006	7.95	5.78	5.43
	2007	7.92	5.67	5.24
p75/p25	2005	2.73	2.46	2.38
	2006	2.71	2.47	2.34
	2007	2.61	2.36	2.26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 주거: 최저주거기준¹⁾ 미달가구 및 주거비 과부담 가구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9.47%, 2006년 20.04%, 2007년 17.56%로 2005년과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미달요건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시설기준 미달가구와 침실 미달가구의 경우 2006년에 약간 증가하다 2007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이에 비해,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2005년 3.22%, 2006년 3.18%, 2007년 2.71%로 해마다 약간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 최저주거기준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이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김혜승(2007),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제외한 시설·침실·면적 기준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표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이

(단위: 천 가구, %)

연도	미달 요건 요소	시설	침실	면적	시설&침실	시설&면적	침실&면적	시설&침실 &면적기준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계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2005	규모	1,259	1,812	511	95	170	283	50	3,085
	비율	7.94	11.44	3.22	0.60	1.07	1.79	0.32	19.47
2006	규모	1,349	1,866	513	101	181	269	52	3,229
	비율	8.37	11.58	3.18	0.63	1.12	1.67	0.32	20.04
2007	규모	1,008	1,843	443	91	132	238	42	2,875
	비율	6.16	11.26	2.71	0.56	0.81	1.46	0.26	1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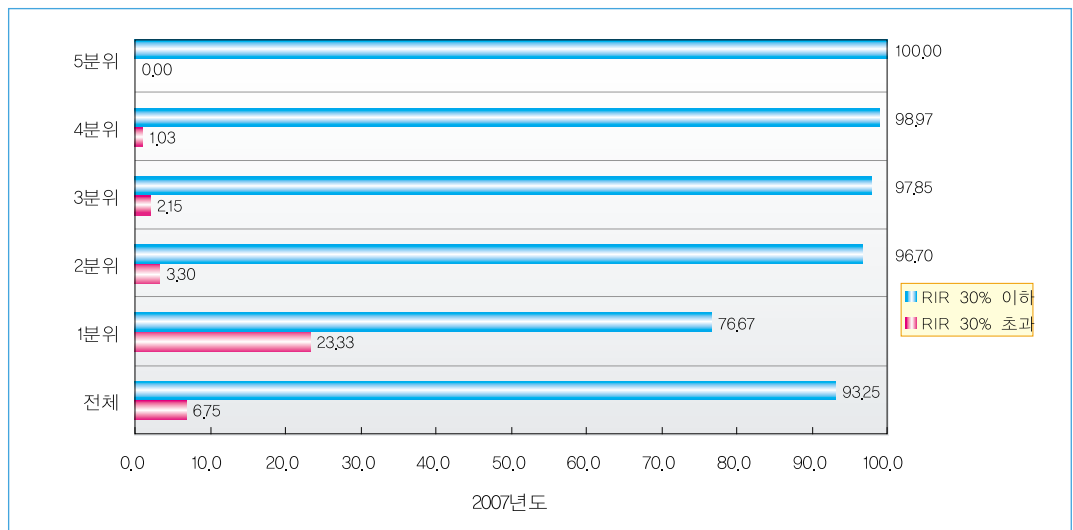
주: 구성요소 합계와 우측 끝 총계 사이의 차이는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구만을 대상으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 RIR)이 30%를 초과하는 이른바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 2007년 기준으로 월세가구의 6.75%가 주거비 과부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월세가구의 23.33%가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5가구 중 한 가구 이상 꼴로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이 수치는 2분위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여 상위 20%에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2] 소득5분위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원자료

□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및 우울지표

- 소득 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는 2005년 평균 2.80점(4점 만점), 2006년 평균 2.68점, 2007년 평균 2.73점으로, 2005년에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분위별로는 모든 연도에서 하위 1분위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최상위 5분위가 가장 건강한 것으로 평가됨. 즉, 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는 예외 없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주관적 건강 간에는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²⁾

[표3]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평균	2.80	2.12	2.75	2.91	3.07	3.13
	표준오차	0.01	0.02	0.02	0.02	0.02	0.02
2006	평균	2.68	2.09	2.66	2.80	2.91	2.94
	표준오차	0.01	0.02	0.02	0.02	0.02	0.02
2007	평균	2.73	2.18	2.68	2.88	2.94	2.98
	표준오차	0.01	0.02	0.02	0.02	0.02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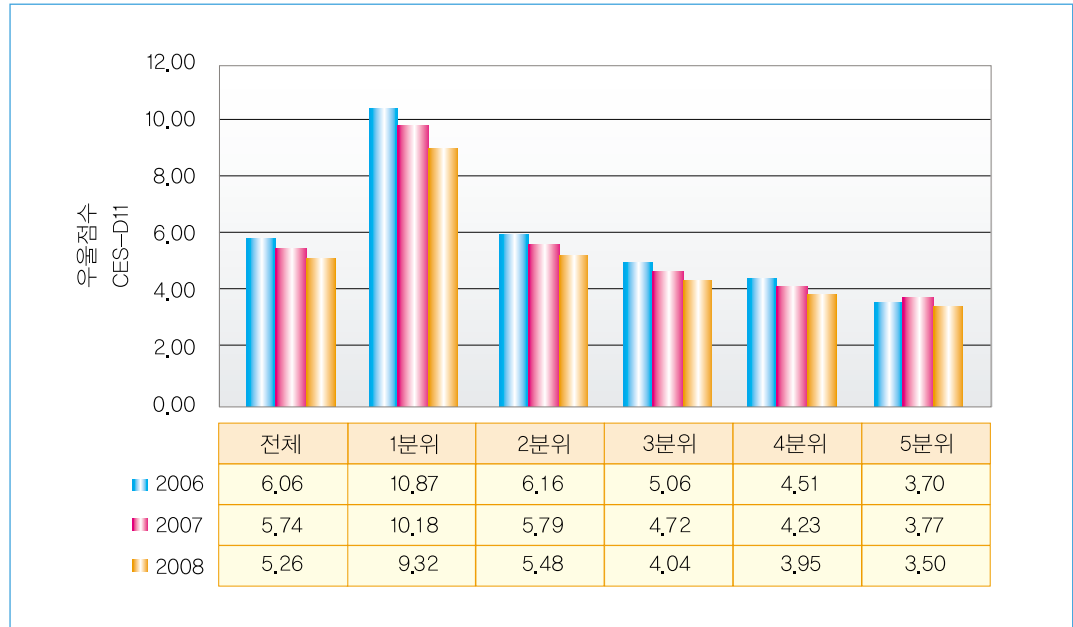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 우울점수는 정신건강의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13개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한 우울점수의 소득 5분위별 추이는 아래 그림에 제시되어 있음
- 연도별로 볼 때 우울점수는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즉, 2006년의 우울점수가 6.06으로 가장 높고, 2007년 5.74, 2008년에는 5.26으로 감소함
- 우울점수 역시 소득분위별 차이가 뚜렷이 드러남. 특히, 하위 20%의 소득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과 우울점수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최하위 계층의 우울점수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임

2) 물론 여기에서 분석된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나 우울점수는 연령 등의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심층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림3] 소득5분위별 우울점수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 복지수급: 사회복지제도 수급률

-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 29.31%, 2006년 39.05%, 2007년 41.48%에 이룸. 이는 역으로 말해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함
- 특히, 17세 이하의 미혼자녀와 한부모로만 구성된 빈곤가구의 수급률은 84.4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빈곤가구 중 약 1/3만이 기초보장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상당수가 주거용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4]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¹⁾

(단위: %)

	전체	노인가구 ²⁾	여성가주 가구	모부자가구 ³⁾
2005	29,31	26,09	39,32	60,12
2006	39,05	35,00	51,11	84,33
2007	41,48	36,01	50,99	84,48

주:1) 욕구대비수급률 = $\frac{\text{기초보장수급가구}}{\text{소득빈곤가구}} \times 100$

2)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3)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인구집단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크게 증가하였음

- 노인이 있는 가구의 노인복지 서비스 경험률은 2005년 18.22%에서 2007년 22.98%로 4.8%p 증가함
- 2007년 기준으로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약 1/3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기준으로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서비스 경험률은 약 38%에 이르렀고,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학비지원서비스 경험률은 약 19%임
- 전체 가구 중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나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 역시 2005년 16.61%에서 2007년 22.57%로 약 6%p 증가하였음

[표5]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노인복지서비스 ¹⁾	이용경험 있음	이용 서비스 수		
		1개	2개	3개 이상
2005	18.22	7.65	3.84	6.74
2006	21.31	9.37	3.11	8.84
2007	22.98	10.44	3.76	8.78
장애인복지서비스 ²⁾	이용경험 있음	이용 서비스 수		
		1개	2개	3개 이상
2005	29.73	26.52	2.90	0.31
2006	34.60	30.06	3.96	0.58
2007	32.97	27.73	3.88	1.36
보육서비스 ³⁾	이용경험 있음	만5세 미만 아동 수		
		1명	2명 이상	
2005	29.43	28.56	33.17	
2006	31.82	29.53	41.19	
2007	36.96	34.08	47.55	
교육지원(서비스) ⁴⁾	이용경험 있음	중고등학생 수		
		1명	2명 이상	
2005	11.79	9.59	15.64	
2006	16.87	14.91	20.69	
2007	18.79	15.64	24.73	

주: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1년간 노인복지서비스(공공부문 재원이 들어간 경로연금, 의료비 지원, 노인 무료급식, 물품지원, 가정봉사 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방문 가정 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등) 수혜 경험이 있는 가구

2) 장애인(비등록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1년간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공공부문 재원이 들어간 장애인 지립자금 대여 서비스,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 주택관련 서비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자동차 관련 지원 등) 수혜 경험이 있는 가구

3)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1년간 보육지원서비스(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 등) 수혜 경험이 있는 가구

4)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1년간 학비지원서비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모부자가정 지원 대상 가구 등의 중고등학생에게 지원 하는 학비지원서비스 모두 포함) 수혜 경험이 있는 가구

[표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이용 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2005	16.61	4.88	9.54	3.82
2006	21.22	6.12	11.76	5.13
2007	22.57	7.01	12.60	5.18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2. 함의

-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로 주요 사회복지지표를 분석한 결과,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분배, 주거, 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복지 수급률과 경험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고, 저소득가구의 주거빈곤(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 과부담)과, 신체 및 정신건강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학적 집단별 정책 영역별로 자원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한국복지패널 개요

- 본 결과는 여유진 외 (2009)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사회지표』를 요약·정리한 것임
-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urvey:Koweps) 개요
 -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구축된 이래 현재 3차 조사결과(시점:2007년)까지 원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가구단위의 패널조사임
 -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의 경제상태 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및 보건의료, 고용,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 등 방대한 영역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가구(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표본추출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이 높은 조사임
 - 아래 표와 같이 표본유지율이 매우 높고, 소득과 지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매년 소득계층별 보건복지 동향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 유리한 조사라 할 수 있음

[표7] 한국복지패널 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단위: 가구, 명)

조사년도	가 구		가 구 원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1차	7,072	-	14,463	-
2차	6,511	92.06%	13,083	90.46%
3차	6,128	86.65%	12,191	84.29%

-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보건복지지표에 대하여 2005년~2007년 간의 5분위별 동향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관련 제도연구에 함의를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표적인 보건복지지표로는 소득분야에서 빈곤율과 지니계수, 주거분야에서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건강분야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지표, 복지수급에서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수급율을 선정하였음
- 5분위 소득 기준은 1인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음

여유진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사항 (eugene@kihasa.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